

소디프, 특수가스 사업이 성장 견인

동부증권, 2008년 매출증가율 60% 넘어 ... NF3·모노실란 호조 전망

소디프신소재가 반도체 웨이퍼, LCD 제조용 특수가스인 NF3(삼불화질소)와 태양전지 기초소재인 모노실란 등의 판매 호조로 2008년 6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소디프신소재는 2008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62.8% 증가한 1563억원, 영업이익이 41.5% 늘어난 583억원을 각각 기록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3.6%에 달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9년에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동부증권에 따르면, 주력 제품인 NF3 시장 확대와 태양전지 산업의 성장에 따른 모노실란의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7.4%와 13.6% 성장한 1992억원, 662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소디프신소재는 반도체 시장 부진과 LCD 업계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NF3의 수요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2009년 2500톤에 그쳤던 생산량을 5500톤까지 2배 이상 늘릴 계획으로 3000톤 규모의 No.4 3000톤 플랜트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노실란 생산도 2007년 300톤, 2008년 400톤에 이어 총 생산능력을 2400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모노실란은 1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신 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신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과제로 소개된 태양전지의 고효율·저가화 기술에 해당하는 핵심소재이다.

하영환 대표이사는 “소디프신소재는 1997년 이후 지난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17.3%에 달했으며, 적자 없이 성장을 지속해왔다”며 “2009년은 차세대 성장산업인 모노실란의 본격적인 대량 양산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이 돋보이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0>